

# 투병 다문화 주부, 지역사회 도움으로 '새 삶'

### 만성신부전증 주 12시간 투석...세차장 알바하며 억척 생활 전남대병원·프렌즈봉사단·광양다문화센터 등 지원으로 필리핀 남동생 신장 기증받아 4시간 수술 끝 건강 되찾아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일주일마다 12시간 이상을 투석을 하던 30대 다문화 주부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돼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9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식혈관외과 최수진나 교수와 이호균 교수가 지난달 27일 필리핀 출신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투병해 온 마리안(여·34)씨에게 남동생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번 수술은 기증자인 남동생의 경우 3시간, 마리안씨는 4시간 정도 소요됐으며,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게 담당의료진의 설명이다.

수술을 마치고 남동생은 1주일만에 퇴원을 했고 마리안은 수술 13일 째인 9일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마리안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예쁜 딸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리안씨는 하나 뿐인 딸을 데리고 악착같이 생활했다. 식당과 주유소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잡'을 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나갔다.

마리안씨는 지난 2019년 6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이틀에 한 번 꼴로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맞게됐다.

평생 투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안씨는 오전에 4시간 가량 투석을 받고나서도 세차장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강한 생활력을 보였다.

이 같은 마리안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광양다문화지원센터는 가족의 신장이식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투석하고 있는 누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들은

필리핀에 있는 남동생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술비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직원과 가족의 봉사단체인 '프렌즈봉사단'은 다문화가정의 장학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리안씨의 사연을 접하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바로 수

술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마리안씨와 남동생의 호적부 상 이름이 다르게 기재 되어 있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의료진을 비롯한 지역봉사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마리안씨는 지난달 27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리안씨는 수술 직후 동생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의료진에게 "고맙습니다"를 수차례 반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프렌즈봉사단은 추가모금으로 회복기간 까지 필요한 생활비 등도 마련해 지난 5일 병원장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마리안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과의 생명나눔을

통해 새 생명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 뜻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최수진나 교수는 "필리핀 남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포스코 프렌즈봉사단에 의료인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같은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말기신부전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을 코앞에 둔 9일 광주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설맞이 인사로 손타트를 그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설 연휴 포근해요

14일 오후부터 비

이번 설 연휴(2월 11~14일) 기간은 평년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이번 설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겠다"며 "다만 아침에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연휴기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10~13일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낮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7도 가량 높은 12도 내외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14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안개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과학교 졸업 의대 진학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학벌없는 사회 대책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은 과학교 졸업생들이 의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과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과학교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2019~2021년도 과학교 졸업생 280명 중 12명이 의예·수의예 등 의학 계열 전공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교 입학생 모집요강에는 '의·치·약 학계열 대학 진학 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비용을 포기하고서 의학계열 진학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는 "영재학교인 과학교는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를 전제로 막대한 협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는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과학교 학칙을 개정해 의학 계열 대학 진학을 규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임시 병폐 위에서 영재학교가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 폐교 3곳 차박·캠핑장 활용 추진

지자체에 무상 임대

전남교육청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폐교 3곳을 올해 안에 차박(자동차+숙박),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사·군 지자체에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지자체가 차박,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교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부 교육청 예산을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폐교 야외 숲은 주민 모임과 휴식 공간으로, 운동장은 체육활동과 각종 옥외 행사를 위한 공간 또는 차박이나 캠핑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면 폐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곳을 시범 대상으로 이달 중 선정해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미활용 폐교가 84개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폐교가 지역과 융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부정 의혹...교육청 위탁해야"

광주교사노조 주장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역 모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채용 전 과정을 시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지역 A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각 학교 단위 2차 전형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학교 관계자)이 시 교육청 위탁 1차 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채용 정원 3~4배수) 관련 신상 정보 등을 미리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시험 합격자 이력서·자기소개서·대학 졸업증명서 등 서식을 2차 전형 일주일 전부터 열

람, 관련 정보를 학교 관계자들끼리 주고 받았다"며 "응시자들의 기간제 교사 경력에 있는 다른 학교에 전화를 걸어 부모의 재산 정도와 정치적 영향력 등 채용과 무관한 정보를 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학교 신규 교원 채용 2차 전형 위원 중 1명은 학교 관련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응시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비리"라면서 "지난 2018년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 1차 합격자에게 접근, 금품 50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A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 다향굴비

대표 박희순·이용철

우리 업체는 100%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최상의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 천일염(5년 이상)으로 염장하여 향상 고객님을 위해 더욱 맛 좋은 굴비를 만들겠습니다.

문의 ☎ 061-356-6798

☎ 010-5356-4990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p>굴비 (가정용)</p>  <p>70,000~130,000원</p>	<p>굴비 (선물용)</p>  <p>100,000원부터~</p>	<p>보리굴비</p>  <p>80,000~100,000원</p>